

“마음 비우는 수행에 도움 되길”

정여 스님 ‘마음의 풍경’ 출판기념법회



정여 스님(오른쪽 세 번째)과 부산 정·교계 지도자들이 명상집 ‘마음의 풍경’을 봉정하고 있다.

법어사 정여 스님이 새 명상집 ‘마음의 풍경’ 출판기념법회를 4월 30일 개최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2000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일깨워주기 위한 풍경소리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의 풍경’이라고 지었다며 “이 책이 끊임없이 출렁이는 자신의 참마음을 알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법회에는 화산 스님(전태종 삼광사 주지), 정각 스님(미륵사 회주),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시불교연합산도회장),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 등 1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부처님 전에 책을 봉정했다.

새 명상집 ‘마음의 풍경(출판사 들리어마인드)’은 ‘나를 깨우는 풍경’ ‘행복을 깨우는 풍경’ ‘수행을 깨우는 풍경’ ‘무심을 깨우는 풍경’ 등 4개로 구성됐다.

책은 지난 1년간 BBS부산불교방송 ‘마음의 향기’를 통해 설법한 내용을 담았다.

정여 스님은 “제목은 일상에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방법을

박지원 기자

단기출가로 불연 심어요

5월 1일 출가 21일 회향환계식... 배소연 양 등 11명

“선생님, 저는 공이 싫어요!” “이제는 행자님이니까 드셔야 합니다.” 출가 후 처음 갖는 점심공양 시간. 11명의 천지불들이 공양 계승을 외우며, 풍합과 갖가지 불나물 반찬, 맑은 된장국으로 공양을 한다. 공이 먹기 싫어 투정부리던 아이들이 지도교사의 한마디에 다시 의젓함을 되찾는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5월 1일 ‘부처님과 함께하는 21일간의 제5기 홍법사 동지승 단기출가’를 개최했다.

대중보전에서 첫날 출가 입제식을 갖고, 7일에 삭발 수계식이 이어졌다. 동지승들은 부처님오신날인 21일 회향 환계식을 진행한다.

제5기 동지승들 배소연(5)양을 비롯해 총 11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홍법사는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출가 전 예비모임을 통해 사찰스님들과 지도교사, 친구들과 함께 친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출가 후에도 사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1주일간의 행자생활을 거친 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 밖에 모든 일정은 여는 스님들과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11명의 동지승들에게 공양예절을 지도하고 있다.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이어간다. 1회부터 동지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이영숙씨는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 절 외부로 나갈 때는 동지승보다 2-3배 더 많은 인원의 지도교사가 반드시 동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개인별 체질, 식습관, 특성 등을 사전 파악해 하루 2번 간식 식단에 유기농 과자와 제철 과일도 식단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이번 동지승 단기출가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해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며 “부모님과 부처님, 스님과 함께 동지승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연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수기법회와 마을상좌 등을 비롯해 동지승 단기출가학교를 각 사찰에서 진행하는 건 무리가 따르겠지만, 전국 교구본사에서 정례회해 매년 개최한다면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051) 508-0345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무형문화재 제9호 범음범패 이수자 우암 스님

염불이라는 악보 없는 음악으로 채워

5월초,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스님들의 장엄한 염불소리가 파도에 실려 해안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촌마을 사람들은 이 염불소리에 맞춰 그들을 걸어 올리고 손수 채취한 미역을 넣어 말린다.

부산 기장군 일광에 자리한 해동성취사에서는 벌써 4년째 범음범패대학을 열고 있다. 일찍이 이곳이 교육의 도량이 되길 부처님전에 발원한 주지 우암 스님(사진)은 무형문화재 제9호 범음범패를 이수하고 20여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현재 제3기 교육생들이 우암 스님이 직접 편찬한 ‘범패의식집’을 교재로 매주 화요일 불음을 펼친다.

범음은 우주 대자연의 소리이고, 범패는 범음을 불러 드러내는 것으로 범음범패란 우주의 대자연과 무명 중생의 본성이 들어 하나임을 깨닫는 불교의식을 일컫는다. 일반적인 독경이나 축원 등의 염불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 높은 기도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범음범패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스님은 “범음범패를 모르던 사람이 처음 알게 되면 아상이 생겨 자꾸만 거만해진다”며 “범음범패에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배움을 전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범음범패 후학 양성으로 회향하려는 우암 스님의 깊은 뜻을 아는 수강생들은 스님의 표정과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수강생은

대부분 출가자다. 하지만 올해 처음 재가불자 수강생이 입학하기도 했다.

우암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열정”이라며 “승량이 많고 적응을 떠나서 자존심이라는 상을 버리고, 염불이라는 악보 없는 음악으로 온몸과 마음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이 처음 범음범패와 인연이 닿은 것은 바로 해동성취사 도량에 오면서 부터였다. 스님은 약 20년 전 주지를 맡으면서 신도 집권, 불공, 재 등을 도맡아 해야 했다. 소위 자기제발의 수단으로 범음범패를 배우게 된 스님은 10년의 세월동안 이수자가 되기 위해 정진했다.

스님은 “범음범패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꾸준히 정진하지 않으면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1년 정도만 꾸준히 정진해도 사찰에서 지내는 모든 재를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다. 스님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량을 충실히 다진다면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돼 후학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암 스님은 “불교계와 많은 분들이 좀 더 범음범패와 영산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앞으로 이러한 불교문화가 더 발전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051)727-0859

박지원 기자

수진 스님, 동명대 불교과 신입생에 특강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에서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40여 명의 신입생을 위해 저녁예불 및 실참 등에 관련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현재 불교문화학과의 <불교학개론> 과목을 맡아 지도하는 수진 스님이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특별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수진 스님은 “여러분 모두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수행과 정진, 보살행 등을 실천하면 거룩한 붓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며 “부처님의 행을 자유롭게 세 사찰 사람들에게 지니게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김영목 학생은 “학기 초 학교에서 가사장삼을 수한 스님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수업 이외에 행복해지는 방법 등을 여쭙보고 싶어

다닐 정도”라며 “앞으로 불교계의 젊은 인재로 성장해 수진 스님처럼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는 4년제 종합대학에서는 처음 설립된 불교 전문학과로 올해 40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미래의 청년 불교지도자를 꿈꾸며 수확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봄맞이 Sale
사용상품

총액 145,000
☎ 02)2004-8216

삼광사 순직자 위령재

전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5월 1일 천안한 순국장병들과 금양호 침몰 희생자, 해군 립스헬기 추락 순직자 등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위령재에는 화산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삼미회장 장각 스님, 배영길 부산시행정부시장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순직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장각 스님은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떠났듯이,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가슴 속에 묻어 둘 것”이라고 애도했다.

청소년 위한 광안리문화존 선포

부산파라미타 여성가족부 등과 1일 선포식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0 수영광안리 청소년문화존 선포식’이 5월 1일 부산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 주최하고,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와 범이청소년동네(이 사장 정여)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9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5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동아리들의 공연의 장인 ‘공연축제마당’과 만다라공예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테마프로그램’, 전통과 신세대 놀이문화 비교 경험하는 ‘Old&New’가 상설 운영될 계획이다.

백명숙 협회장은 “문화존은 청소년들이 단순 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거듭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13-4306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기의 액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 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 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 수 있다.」(관세음보살명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 시작 조심

닥처울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붉은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에도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 통반고, 삼재관재수로 번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

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려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금계좌 별도 상담요)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환날이 없는 오늘날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계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